

추리문학 대중화 선도하는 중심지

부산 해운대서 개관한 국내 유일의 '추리문학관'

우리나라 유일의 추리문학관이 부산에서 문을 열었다. 멀리 대마도가 넘실거리고 가까이 어촌부락 청사포가 내려다보이는 해운대구 '달맞이고개'에 세워진 추리문학관은 그 걸출한 전망과 함께 바야흐로 본격적인 전문도서관으로서 부산의 명소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관식과 더불어 개관한 이 문학관은 우리나라 추리문학의 거목으로 평가받는 김성중씨가 8년전 마련했던 부지에 사재 20여억원을 들여 "추리문학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로 설립한 것. 이 문학관은 독자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문학이라는 이유로 푸대접받고 있는 우리나라 추리문학의 척박하기만 한 뒷밭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더욱이 외국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작가 개인의 힘으로 이룬 추리문학 전문도서관이라는 점에서 각계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끌고 있다.

척박한 대중문학에 신선한 자극

정월 대보름날 제일 먼저 달을 볼 수 있다는 '달맞이 고개' 마루턱에 오르면 대지 180평, 건평 5백평 규모에 바다를 마주하는 창들이 온통 통유리로 끼워진 지하1층 지상5층짜리 은회색 건물에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든다. 카페식으로 꾸며진 1층의 가운데에 입관료 천원을 내면 우유나 커피를 골라마시면서 마음껏 읽을거리를 구경할 수 있다. 정기간행물과 일반소설류, 교양·레저 부문에 코너별 서가에는 가볍게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즐기며 읽을 만한 잡지와 책들이 비교적 자유로이 꽂혀 있다. 여름엔 뒷베란다의 야외 열람좌석에 앉아 시원히 책을 펼쳐들 수도 있다.

좀더 책읽기에 몰두하고 싶으면 3층과 4층의 열람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된다. 이곳엔 김성중씨 개인 소장본과 출판사의 기증본으로 마련된 1만여권의 장서가 비치돼 있다. 적절한 공간마다 일반소설과 시, 국내 추리소설 그리고 약간의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이 분류돼 있다. 그 가운데는 60여종의 작품을 발표한 김성중씨의 소설이 단연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해방전 유일했던 추리문학 작가로 김래성의 작품들도 눈에 띄며 해방후에 추리소설의 명맥을 잇던 허현재씨 소장본 코너도 따로 마련했다. 애거서 크리스티나 시드니 셸던, 모리무라 세이치 같은 외국 인기작가들의 책

들도 빈번하다.

4층엔 외국 추리소설들과 일본의 추리문고, 추리문학 전문지와 문예지들이 아직 빈자리가 많은 채 서가에 나란하다. 물론 책은 마음대로 골라 읽을 수 있는 개가식인데 사서담당 직원이 층마다 있어 상담해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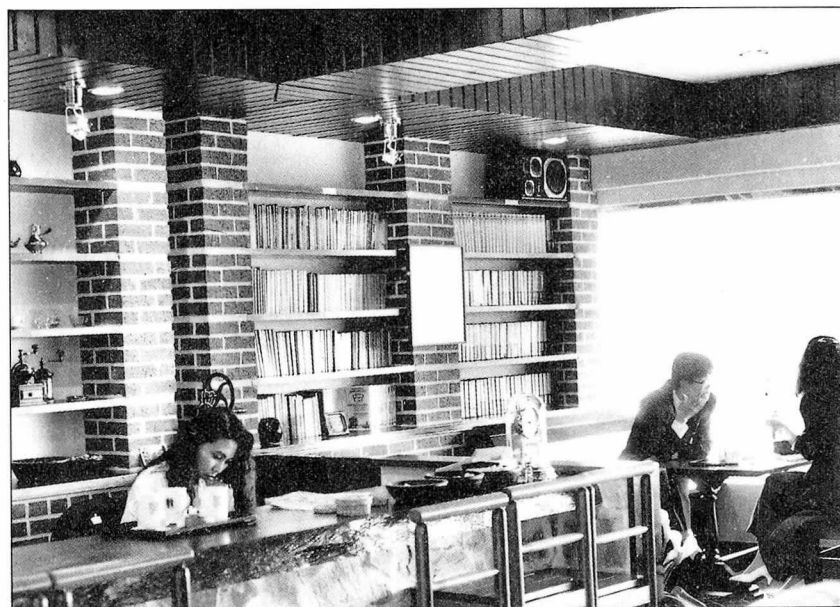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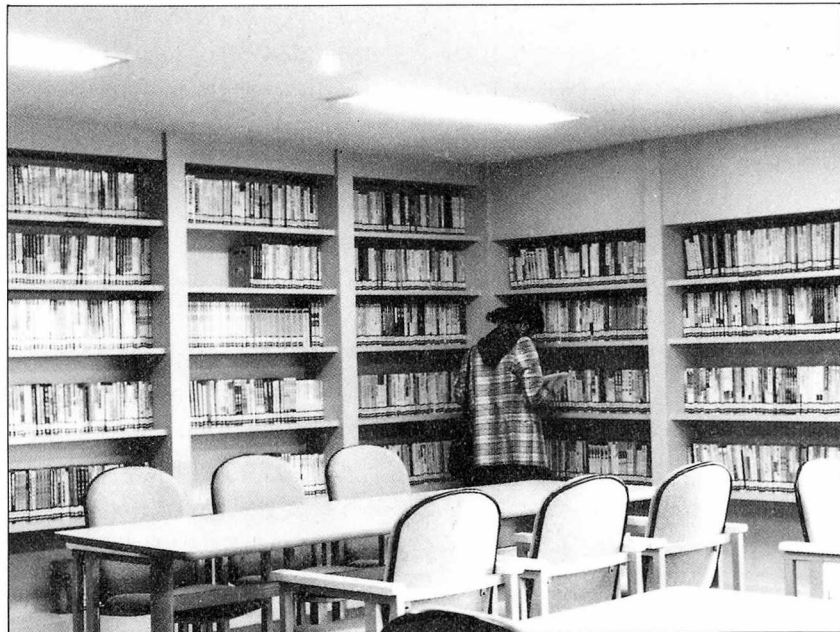
열람실 모두 바다를 시원히 바라보면서 책을 읽을 수 있어 그 낭만적인 분위기에 젖다보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의 개관시간도 오히려 짧게 느껴진다. 조명과 채광, 자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좌석배치 등등 어느것 하나 소홀함이 없는 이 문학관에서 '공부방' 아닌 책 읽기를 위한 진짜 도서관의 분위기에 접하는 듯하다.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가 특징

서가 사이마다 걸린 외국 추리작가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액자도 좋은 볼거리. '메그레경감'을 창조한 세계적인 프랑스작가 조르주 심농이나 신선하고 박력있는 문체로 정평난 하드보일드 추리소설의 대가 레이먼드 챌들러, 그밖에 로월드 달이나 앤드류 가버, 마이클 클리튼 등 간단한 프로필과 함께 유명작가들의 일상적 모습과 집필실을 담은 사진들을 보며 추리문학의 계보를 더듬는 묘미도 느낀다.

하지만 아직 추리문학 전문도서관이라기엔 장서도 부족하고 또 그만큼 분류도 단순하다. 추리소설로 분류된 것만 5백여종에 불과한 것은 워낙 국내 추리문학 작품이 빈약한 데다 번역본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나다순의 책이름 차례대로 꽂혀 있지만 장서가 나름대로 갖춰지면 국내소설과 외국소설, 정통추리물과 하드보일드계 식의 더욱 섬세한 분야별 분류방법도 기대해볼 만하다. 원서는 현재 거의 없다시피해서 많은 양을 미국과 영국·프랑스 등지에 주문한 상태. "국내추리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서적 구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김성중씨는 앞으로도 외서수입을 장기적으로 계속할 예정이다.

"도서관이라기보다 문학관"임을 강조하듯 추리문학관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게 되는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가장 편안하게 책을 읽는 장소"로서의 분위기가 가장 큰 특징이다. 아직 단장을 마무리짓지 못한 지하에 소극장을 꾸며 추리극이나 영화를 상영하고, 김성중씨의 집필실이기로 한 5층을 야에 추리소설에 열광적인 독자들과 모임 '미스터리 클럽'이나 문인들, 추리작가 지망생들의 모임장소로 사



위: 3층 열람실. 오른쪽 통유리창으로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책을 읽을 수 있다.

아래: 지난 3월28일 개관한 부산의 추리문학관 1층 카페식 열람실. 차와 담소를 즐기며 자유로이 책을 읽는다.

방처럼 개방하겠다는 뜻도 그같은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뒷받침한다. 추리문학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더욱 활발한 프로그램도 준비중이다. 예컨대 국내 추리작가를 초청해 추리소설가 지망생을 위한 '추리소설강좌'를 개설하거나 '추리소설 여름학교'를 개관하는 등.

영국 런던엔 코난 도일이 탄생시킨 '명탐정 홈즈의 박물관'이 있다. 실재하지 않은 인물인 홈즈의 흉상과 그가 즐겨 입에 물던 파이프와 돋보기들의 전시물을 보기 위해 영국인들은 기꺼이 줄을 선다. 그만큼 추리문학은 대중문

화의 깊은 뿌리를 지녔다는 얘기가. 우리나라로선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추리문학의 대중적 공감기류가 얼마나 확산돼 있는지 부산의 추리문학관은 처음으로 확인시켜 준 셈이다.

—김지원 기자